

# 2005년 S/S Trend에 나타난 Jeans의 패션경향과 패션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김영란\* · 김병미\*  
혜천대학 패션코디네이션과 초빙교수\*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 A Study On Trend of S/S Jeans in 2005 by Using Fashion-ware Development Design

Young-Ran Kim<sup>+</sup> · Byeong-Mee Kim<sup>\*</sup>

Visiting Prof., Dept. of Clothing & Fashion Coordination Design, Hyecheon College<sup>+</sup>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University<sup>\*</sup>  
(2006. 3. 10. 접수; 4. 28 채택)

### Abstract

As fashion is a reflection of a way of life, jean fashion seems to be a reflection of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social-human psychology. Modern jeans reflect personality and trend rather than traditional practicality as indicated by the concept and emphasis of fashion. Since the early 1990s, practical use of jeans has appeared consistently in products for interior use, various kinds of fashion-ware and fashion properties, as well as in fashion that is a conversion and interpretation of an outstanding fashion trend. And the search, providing that various symbols of jeans are sensualism, deviation, ostentation, amusement and multi-culture, shows that jeans represent the multifarious aspects of fashion culture.

For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earch to meet different consumers' desires by the practical use of jeans and the development of fashion-ware.

First, investigate the trend of jeans in 2005.

Second, try to change the various uses of jeans by reflecting the trend of jeans.

Finally, extend the range of choice by developing various goods.

As a result, basic jeans have the strength of function, activity, and originality. Use of ornamental jeans can fully show their value as well as their emphasis of individuality in beauty. If we consider these points, we can minimize the limitations of jeans and make a practical use of the fashion trend, If we make the function of jeans stand out through the use of varieties of materials, the modern characteristic consumption will be met by the various change of use as well as by the clothes.

**Key Words:** Jeans(진즈), Trend(트렌드), Ornamental jeans(장식적인 진), Jacquard jeans(자카드 진)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Kim

Tel. +82-11-9002-0496, Fax. +82-43-236-7004

E-mail : youngna71@hanmail.net

## I. 서론

유행이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Fashion is a reflection of a way of life)이라고 볼 때 Jean<sup>1)</sup>의 유행은 사회적 인간심리의 배경과 작용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Jeans는 과거의 전통적인 기능성보다 개성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유행의 개념과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1900년대 초기의 진은 노동자의 작업복 수준이었다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반항적인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었고 1970년대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진의 활용은 실용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션성을 강조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진 패션 트렌드의 다양한 방향전환과 해석으로 진의 활용은 패션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제품과 각종 패션 상품 및 소품 등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대거 인테리어 제품출시<sup>2)</sup>는 패션 트렌드를 통한 소비자의 욕구를 적절히 파악하여 세트화 개념의 토탈 패션을 추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효과까지 부여하고 있다.

진즈의 다양한 상징성으로 관능성, 일탈성, 과시성, 유희성 다문화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구<sup>3)</sup>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Jean이 그 만큼 다양한 얼굴을 가진 패션문화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진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면 보다는 젊음과 개성을 표현하고 경제력과 유행의 상징물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개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제품들은 고급스러움과 변화된 디자인의 창조로서 현대인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더불어 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현대인들에게 패션의 아이템으로 한 가지 이상의 패션상품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진이 가장 대중적 이면서도 적극적인 유행의 표현을 적절하

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데님 직물을 활용한 다양한 패션 상품은 그 장래를 기대 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진을 활용한 패션의류의 트렌드 경행과 더불어 다양성을 활용한 패션상품 디자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해 보다도 진을 활용한 패션성이 두드러진 2005년 S/S트렌드에 나타난 진의 패션 트렌드 경향을 알아보고 둘째, 진의 트렌드를 반영을 통한 다양한 용도의 디자인 변화를 알아보고자하며 결과적으로 Jeans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디자인을 위한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패션관련 잡지와 신문,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 II. Jeans의 관한 고찰과 패션성

### 1. Jeans의 개념

Jean의 위대한 발견은 프랑스의 님(Nim) 지방에 16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20세기에 Jean의 아버지로 알려진 리바이스 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수입한 직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Jean은 Denim과 유사한 직물로 고대 직물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생산된 Nimes라는 능직의 면직물로 보고 있다. 이것을 “La serge de Niimes” 라고 불렀으며 이후 미국식 표기로 Denim으로 표기하고 있다<sup>5)</sup>.

Jean의 기원과 직접적인 관련 직물은 “Serge de cotten(면서지)”이다. Jean의 어원은 이탈리아 제노비세의 방언에서 찾을 수 있는데 genes(불)로서 이탈리아 제노아의 직물을 가리킨다. 초기 제노아의 선원들은 능직으로 된 면직물로 된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인도의 뱃사람들은 이 직물로 작업복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 이를 ‘Dun grass’라고도 표현하였다고 한다<sup>6)</sup>. 그 원산지에 따라서 제니스 지방의 “Serge de cotten”를 “Jean”라고 불렀다고 하며 이것이 후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1860년 이후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았던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는 바지를 제조할 수 있는 직물을 특히 Denim은 19세 미국에서 별개의 용도를 가진 2개의 다른 직물로 간주되었다. 공식적으로 Jeans란 이름이 점차 직물에서 바지의 뜻으로 전이된 것은 20세기 중반기인 1925-1950년 동안이다.

Jean이 블루(Blue)의 색을 띠게 된 이유는 Levi's Strauss가 값이 저렴하면서도 오래가는 인디고(Indigo) 남색으로 염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현재 우상 라벨이 된 리바이스 501을 시작으로 진의 시리즈가 생겨났다. 1950년대 영화 '에텐의 동쪽'에서 제임스 딘의 심플한 블루진은 돌발적이면서도 반항적인 표현으로 젊음을 상징하는 의상이 되었다.

Jean이 유럽에서 대중화 된 것은 유럽에 주둔한 미군들이 여가 시간에 진을 즐겨 입었던 것을 통해서였다. 이후 리바이스의 경쟁사들 중 성공을 거둔 회사는 랭글러(Wrangler)와 리(Lee), 그리고 무스탕(Mustang)이었다. 진이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던 19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는 블루진의 과포화가 식상함으로 등장하여 블루진은 모든 가능한 패션을 실험하게 되어 '스톤 워시드(stone washed)'나 '문 워시드(moon washed)'의 기법을 이용하거나 중고제품에 구멍을 내기도 하였으며 당근모양으로 허리에 주름이 있는 형태나 스팬을 소재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 전형적인 현상은 '디자이너 진'으로 엄청나게 값이 비싼 것도 등장하였는데 캘빈클라인은 십대 소녀 스타 브룩셀즈를 모델로 하여 여피족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그림1>. 80년대 말



<그림1>  
1980년대 캘빈클라인 진  
(잉그리드르쉐와인 (2001).  
패션의 클래식. 예경, p.41)

핑크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블루진을 예술적으로 찢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다시 베이직 한 것에 비증을 두게 되어 오리지널로 시작하는 것에 긍정적인 판매결과를 얻게 되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진의 형태를 보면 돌체 & 가바나(Dolce & Gabbana)의 표범 가죽 소재나 W & L. T.의 합성수지 소재, 구찌의 바지 주름이 들어간 형태 등 그 소재나 기법에서 다양한 변이와 형태를 보이고 있다<sup>8)</sup>.

2000년대에 들어 진의 경향은 찢기와 자수, 레이스와의 믹싱, 형태와 길이의 다양성, 프린팅 등 그 범위와 소재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트렌드의 시작은 2000년 출시된 세븐 포 올맨 카인드 청바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부터다. 가격은 비싸지만 히프의 곡선을 살려주면서 다리를 길어보이게 해주는 명품 청바지가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인데 명품 청바지의 대부로 불리는 에이드리언 골드 슈미트 밑에서 활동한 제롬과 조 데이한 형제가 독립해 각각 세븐진과 조스 진을 출시한 이래 블루컬트와 얼진, 페이퍼 데님 등 수많은 '명품 진' 브랜드가 사랑받고 있다<sup>9)</sup>. 디자이너 루비나는 진의 장점을 '4무(無)'로 표현하여 남녀 구분, 지위상하, 나이 고저, 빈부 차이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진을 활용하는 법도 매우 고급스러워졌는데 예전 같으면 티셔츠와 운동화에 매치시킬 만한 스포티한 청바지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크리스털처럼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스톤이나 자수로 장식하고 레이스, 시폰 등과 매치하는 로맨틱한 Jeans까지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고 하듯 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Jeans는 초기의 노동복 형태에서 출발하여 시대 변화와 디자인, 소재의 개발 등을 통하여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 의류와 관련된 아이템을 표현하는 데는 Jeans로 표기하는 예가 많으며 같은 의미의 데님은 직물을 직접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현재 익숙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2005년 S/S Trend와 Jeans 패션상품의 동향

요즘 패션계에 데님(진·jean)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용적인 캐주얼 아이템에 주로 쓰이던 데님 소재가 최근 원피스·구두·핸드백·시계·벨트 등 다양한 품목에 쓰이고 있다.

특히 해외 명품 브랜드 중 가장 많은 데님 소재 상품을 선보인 '크리스찬 디올'은 핸드백·지갑·샌들·바지 등 다양한 종류의 데님 소재를 내놓고 있다. 앙증맞은 그래픽을 포인트로 한 데님 백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스크림 그림이 있는 판탈롱 팬츠, 은색 별 무늬가 세련되게 조화된 재킷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펜디'에서도 백·신발·점퍼·바지 등 15가지 스타일의 데님 소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봄에 새로 선보인 데님 라인 핸드백은 부드러운 느낌의 데님과 짙은 밤색 뱀 가죽 장식의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룬 상품이다. '구찌'도 핸드백·신발·지갑·모자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데님 소재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오리지널 구찌 로고를 넣어 캐주얼과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데님 백이 큰 인기다. 이 밖에도 뒤가 트여있는 데님 소재 슬리퍼, 캐주얼한 병거지 모자와 열쇠고리 등도 시판하고 있다. '버버리'는 의류와 소품류 및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가 보이는 진 팬츠 등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데님 소재 상품을 부쩍 늘리고 있는데 남성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준코 고시노'는 헌팅 캡 스타일의 진 모자, 진과 가죽으로 만든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다. '툼보이' 액세서리도 여성용 토트백, 구두, 운동화를 내놓았다. '러브 캣'은 진과 가죽으로 만든 지갑과 핸드백이 인기다. '쌈지'의 캐릭터캐주얼 '쌈'이 새로운 스타일의 데님 판타지를 출시하였는데 '쌈'의 데님 판타지는 30회 이상의 염색과 100% 면사를 사용한 전통적인 빈티지 스타일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재에 있어서 텐셀이 최근 데님 소재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 업계에서는 크리스탈 텐셀

면 혼방으로 만든 데님이 이번 시즌 'EXR', '폴햄', '티비제이', '잠뱅이', '옵트', '후부', '마루' 등 유니섹스캐주얼과 스포츠캐주얼 브랜드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크리스탈 텐셀 데님은 면 데님보다 내구성이 우수하며 착용감과 실루엣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텐셀을 위사에만 사용하고 경사에는 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통 데님의 외관을 가진 반면 피부에 와 닿은 느낌이 면 데님보다 부드럽고 가볍게 느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11)</sup>. 텐셀 코튼 혼방 데님은 100% 면 데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가볍고 부드러워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프리미엄진의 고급스러움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sup>12)</sup>.

데님 소재는 속옷에까지 응용되어 '힐라 인티모'는 진 느낌이 나는 여성용 브라 팬티 세트와 남성용 진 삼각팬티를 커플로 디자인하였다. 순면으로 만든 얇은 진 소재로 피부와 기능성을 고루 만족시키고 있다. 임부복 전문 업체인 '쁘레나탈'은 산모들이 입기 편한 스판 소재의 청바지와 신축성 있는 청 원피스를 내놓았다.

의류뿐만 아니라 골프·인테리어·장식 용품에도 데님 소재를 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용 골프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랑방 스포츠'는 올 봄 신상품으로 캐디백·가방 등을 선보였다.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는 젊은 층이나 여성들에게 인기다. 캐디백과 각종 인테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하트 바스켓'은 다양한 데님 소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진 앞치마, 주방용 진장갑, 굵이 있는 슬리퍼가 있다. 또 세탁물 보관함, 진 방석 커버도 판매한다. '미치코 린단'은 침구류에도 데님 소재를 접목, 침대 커버 세트와 패드를 판매하고 있다<sup>13)</sup>.

하이패션의 총아로 급성장한 데님(Jean) 소재의 다양한 전개가 돋보이는데 '진을 전혀 진 같지 않게, 진이 아닌 것을 진처럼' 보여주는 디자이너 이진운의 컬렉션이나 화려한 비즈와 자수, 전위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강기욱의 빈티지진 컬렉션 등은 스트리트 감성과 하이패션의 접목을 보여주는 시도로 보여 진다<sup>14)</sup>.

2005년 S/S Jeans 패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 럭셔리 Jeans 패션의 유행은 캐주얼 브랜

드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에서도 데님 소재로 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의상들이 많이 나왔으며 염색을 하거나 보석장식을 하고 핸드페인팅이나 자수로 포인트를 주면서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가격도 예전과 달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높은 가격대의 의상도 많이 나타났다. 디자이너 강기욱이 선보인 과감하고 섹시한 디자인에 데님과 쉬폰 소재를 믹스 매치하여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Jeans 고정관념을 깨고 투피스는 물론 파티용 드레스는 섹시한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움과 오리엔탈 데님 룩은 Jeans가 미국적인 패션의 전유물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5)</sup>.

만인의 연인이 된 Denim은 이번 시즌에서 패션 브랜드의 팬츠와 재킷 등 의류는 물론이고, 슈즈나 백에 이르는 패션 액세서리까지 스타일링 한 데이웨어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님 아이템을 앞 다투어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sup>16)</sup>.

### III. 2005년 S/S Trend에 나타난 Jeans의 패션경향

#### 1. 장식적인 진(Couture Jeans)

2005년 S/S의 Trend로 주목할 진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장식이 더해진 감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4월 21일 일반인들의 청바지 등 데님 패션이 고급 패션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민의 데님 제품이 고급 패션화되는 데에는 일반의 인식이 급변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청바지 및 청치마가 회의는 물론 장례식에도 어울리는 패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sup>17)</sup>. 크리스탈, 라인스톤, 자수 장식은 물론 화려함이 돋보이는 청바지는 월 스트리트 저널 까지 인정 받은 진 브랜드인 '세븐 포올 맨카인드(Seven for all Mankind)'의 핑크와 적갈색 스와롭스키 크리스탈로 장식한 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주이시 꾸뛰르(Juicy Couture)'는 시판하는 데님의 40%를 라인스톤, 자수 진으로 구성하는 등

장식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매튜 윌리엄슨은 황금색의 나뭇잎과 비드 장식을 가한 리바이스 501진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sup>18)</sup>. 이러한 고가의 Jean 중에서도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A. P. O. Jean'은 고급 데님에 다이아몬드, 골드, 플래티늄 등으로 장식한 럭셔리 Jean으로 고가의 인디아산 데님을 사용하고 버튼과 리벳은 고급 메탈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다이아몬드로 버튼을 달아 주는 등 기존의 데님과 현격한 수준차를 보인다<sup>19)</sup>. <그림2>의 돌체 & 가바나는 비즈와 자수를 팬츠 전체에 장식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장식적인 Jeans으로 세계가 인정받은 토종 패션 브랜드 'Kiok(강기욱)'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등 10여 개국에서 판매중인 데 가격에 있어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데님 드레스의 소매 가격대는 750만원~1200만원대이며, 현지에서 바지 수출가격이 15만원~40만원대이고, 재킷이 75만원~150만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고가의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세련미와 화려함, 고급스러움을 갖춘 드레스는 웨딩드레스로 입으려는 현지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고, 지난 1월에는 프레타 포르테 참가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라파예트에서 입점 제의를 받는 성과를 얻었다. '룩북'에 소개될 Kiok의 작품은 그 동안 컬렉션에서 보여준 다양한 컬러의 십장생 문양을 스와롭스키의 크리스탈로 생생하게 표현한 재킷과 뷔스티어(bustier)에 형태의 탑(top), 팬츠(pant) 등 5개 아이템이다<그림3><sup>20)</sup>.



<그림2> 돌체 & 가바나의 장식적인 진 (www.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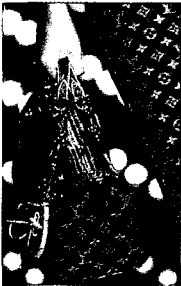


<그림3> 'Kiok(강기욱)' Jeans 패션 (조선일보 2005년 4월 27일 패션&뷰티 면)

이와 같이 한국의 디자이너도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장식적인 Jeans는 2005년 S/S의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인 동시에 소비자의 고급화를 촉진하는데 충분한 디자인과 소재의 다양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2. 자카드 Jean

2005년 S/S 패션 경향으로 데님 소재의 단독 사용은 클래식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지만 다른 소재와의 빈번한 혼합과 변형은 Jea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얼굴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또한 일반 직물에서 사용되던 자카드 진의 등장은 의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패션 상품으로 토탈 코디하는 고급화 된 소재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림4> 루이비통의 럭셔리한 모노그램백과 팬츠 (www.vogue.co.kr)



<그림5>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데님 토트백 (www.style.com)

명품 브랜드의 대표인 루이비통의 고유 로고를 직조한 모노그램 데님 백 <그림4>과 토트백 <그림5>, 에르메스의 데님 켈리 백, 존 갈리아노가 크리스찬 디올에서 선보인 데님 드레스와 스커트, 슈트 등은 정교한 디테일과 완벽한 커팅으로 데님의 꾸뛰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IV. Jeans를 활용한 패션상품디자인

1. 디자인의 변화

1) Pants

Pants의 색상은 블루계열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블랙칼라 또한 모던하고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었다. Pants 디자인의 이슈로 등장한 <그림6, 7, 8, 9, 10>의 다양한 디자인의 미니멀한 크롭트 팬츠가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빈번히 나타나며 <그림11, 12, 13, 14>과 같이 70년대 풍의 짧은 길이의 핫팬츠와 <그림15>의 자수나 울을 푸는 자연스러운 히피풍과 여기에 <그림16>과 같이 레이스나 자수로 장식하며 다른 천과 같이 자주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형태가 웨이스트라인이 아래로 내려가 밑위가 더욱 짧게 나타나는 색시한 청바지 라인은 단연 허리선을 파격적으로 낮춘



<그림6> Hermes. Collection. 2005 S/S. Paris, p.133



<그림7> Hermes. Collection. 2005 S/S. paris, p.133



<그림8> Alexander Mcqueen. ELLE Korea. February. 2005 S/S, No.148



<그림9> Sportmax. ELLE Korea. February. 2005 S/S, No.148



<그림10> Just Cavalli Collection. 2005 S/S. Paris, p.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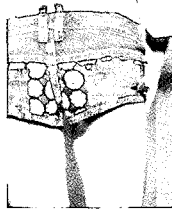
<그림11>  
Just Cavalli Collection  
2005 S/S. Paris, p.384



<그림12>  
Hermes Collection.  
2005 S/S. Paris, p.133



<그림13>  
ELLE Korea. February  
2005 S/S, No.148



<그림14>  
Dsquared. 2005 S/S collection  
(www. vogue.co.kr)



<그림15>  
D&G 2005 S/S collection  
(www.style.com)



<그림16>  
D&G 2005 S/S collection  
(www.style.com)



<그림17>  
Dsquared2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322



<그림18>  
D&G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333

‘로 라이즈 진(Low Rise Jean)’이다. 밑위길이가 3~4인치 정도로 골반 뼈가 보이는 디자인에는 노출에 대한 대담함과 자신감이 엿보인다<그림 13>.

## 2) Skirt

팬츠와 마찬가지로 블루계열이 대부분이며 길이가 <그림17>와 같이 무늬가 들어간 데님 직물에 무늬의 모던함이 돋보이도록 짧은 스커트 형태로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스커트와 <그림18>의 컬러풀한 색상을 프린팅 하는 리조트 룩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찢겨진 듯 디자인된 스커트와 여기에 간혹 미니의 티어드 형태나 고어드, 또는 불규칙한 행커치브 라인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기본적인 스커트 형태를 많이 벗어난 다양한 디자인적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19>.



<그림19>  
Evsu. ELLE Korea.  
February. 2005 S/S,  
No. 148

## 3) Suit

올해 진 트렌드의 이슈 중에 하나로 재킷과 스커트를 매치하여 자유로운 개성을 강조하는 장식적인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재킷은 트렌드를 반영하듯 짧은 허리를 살짝 덮는 형태에 타이트 스커트가 주를 이룬다<그림20>. 특히 <그림21>과 같이 Jean을 활용하여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정장의 예복 분위기를 보석과 자수를 활용하여 품위 있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스타일들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색상의 사용에 있어 다크 한 톤의 블랙 Jeans를 밀리터리한 감각의 절제된 디자인의 재킷과 크롭트 길이의 팬츠와 매치시켜 모던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의 슈트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 22>.



<그림20>  
D&G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330



<그림21>  
금색의 자수가 돋보이는  
데님슈트

ELLE (2005). 2월호,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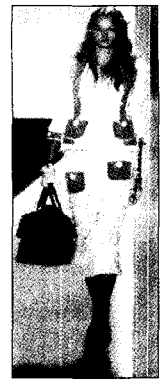
<그림22>  
Anna sui Collection.

ELLE Korea. February. 2005  
S/S, N.148



<그림23>  
John Galliano.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70



<그림24>  
Christian Dior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120

존 갈리아노는 기존의 정장에 보석과 장식을 극대화 시킨 팬츠를 코디하거나<그림23> Jean을 어깨 프린세스라인과 포켓에 패치워크 하여 정장의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한층 fashionable 하게 표현하고 있다<그림24>.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커트 햄 라인 밖으로 쉬폰과 비즈가 엿보이게 장식하여 자칫 딱딱해 질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을 색다른 분위기로 연출하고 있다<그림26>.

3) Dress

Jean을 이용하여 만든 드레스는 정장의 슈트와 마찬가지로 형태의 변화와 그 활용에 있어 디자이너들이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림25>와 같이 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인 다른 소재와의 혼합으로도 어색함이 없이 진이 가진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적절히 사용

4) 소품류

일반적인 가방이나 장신구들은 가죽이나 합성피혁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특히 올해에는 자카드의 진을 활용하여 명품 브랜드의 로고를 넣거나 프린팅 하는 등 그 기법이나 활용에 있어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7>은 루이비통의 데님을 자카드로 직조한 모노그램 백과 팬츠로 토탈 코디하고 있다.



<그림25>  
John Galliano.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70



<그림26>

Just Cavalli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385



<그림27>

Louis Vuitton ELLE Korea.  
February.

2005 S/S, p.148



<그림28>

Just Cavalli Collection.  
2005 S/S. Paris, p.385



<그림28>의 Just Cavalli Collection에서는 스커트와 큼직하고 멋스러운 가방에 앵클부츠를 코디하는데 자수와 퀼팅, 핸드메이드 느낌의 스티칭, 가죽의 부분적 사용으로 포인트를 주어 트렌디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 2. 소재의 변화

2005년 S/S 트렌드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진이 일반적인 능직의 무지인데 반해서 자카드 직을 활용하여 은사나 금사를 넣어 짜거나 소재의 고급화를 위하여 실크나 울, 합성섬유를 혼합하는 점이 특히 많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자카드<sup>23)</sup> 직물의 등장은 직물의 고급화 트렌드에 영향으로 의류 뿐만이 아닌 여러 패션 상품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진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소재를 불문하고 다양한 무늬 직을 시판하여 다양한 시도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Jeans의 고급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그림29>.



<그림29> Christian Dior Collection 동아TV 2005 S/S, Paris & Milan, p.120

##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Jean의 다양한 패션상품 디자인 경향 변화를 중심으로 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기능성과 실용성은 물론, 장식적인 Jeans의 활용은 디자인과 형태의 변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소재의 고급화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패션 아이템과 달리 그 범위가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류패션 상품에 있어서 바지(pants)에 국한되었던 일반적인 Jeans는 재킷과 드레스, 슈트의 개념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어 기능적인 옷에서 개성의 강조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고부가 가치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과 겉옷의 개념

이었던 Jeans가 속옷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어 진의 가진 감성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소품류에도 적용되어 명품의 가치에 손색이 없다는 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재의 변화를 통하여 고급 문직으로 불리는 자카드 라는 무늬 직물을 활용한 데님이 대거 출시되어 그 활용도가 어느 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결과적으로 Basic한 Jeans는 기능성과 활동성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 장식적인 Jeans의 대거 등장과 활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적인 캐주얼의 개념에서 벗어나 의류디자인 및 패션상품디자인에 무한대의 장점으로 개성의 강조와 더불어 고급화의 지향과 그 가치를 충분히 미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착안한다면 진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리고 더불어 캐주얼의 대명사로 불리던 Jeans가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꾸뛰르적인 감성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트렌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다양한 소재의 변화를 통한 Jean의 기능성과 장식성을 부각시킨다면 의류뿐만이 아닌 다양한 디자인의 패션상품으로의 용도변화를 통하여 현대의 개성적인 소비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색상의 사용과 기법에 있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라사라 교육개발원 (2002). 패션용어사전. 라사라 교육개발원, p.502; 진즈 라고도 하며 능직으로 짠 목면을 말한다. 색 무지염이 대부분이며 프린트나 광택을 넣거나 스포츠웨어, 작업복, 유니폼, 아동복 등에 쓰인다.
- 2) 예) 겐조, 폴로 랄프로렌, 앙드레 김의 홈인 테리어 제품.

- 3) 김민정, 금기숙 (2002). 진즈 패션의 상징성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2(7), pp.155-166.
- 4) Gilles Lhote et Christian Audigier (1992). *Le Jeans des beros. Des pionnier aux rebelles 1850-1950*. Pans : Lincoln, p.61.
- 5) Norton, W. W., Florence M., Montgomery (1984). *Textiles in Amenca 1650-1870*. New York et Londres, pp.216-217.
- 6) 조규화 (198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287.
- 7) Je remercie Lynn downey, *Archinste de levi stranss and Company* (San Francisco, de M' avou fourni cette information)
- 8) 잉그리드로셱, 베아테 슈미트, 황현숙 역 (2001). *패션의 클래식*. 서울: 예경, pp.40-41.
- 9) 매일경제. 2005년 5월 12일. 자료출처 [http://inews.mk.co.kr/CMS/emag/emSec/emSecCa/6622336\\_4075.php](http://inews.mk.co.kr/CMS/emag/emSec/emSecCa/6622336_4075.php)
- 10) 경향신문. 2005년 3월 24일. 자료출처 <http://blog.daum.net/stylelux>
- 11) 어패럴뉴스. 2005. 3. 17. 06시 43분.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
- 12) Fashion Insight. 2005년 6월 27일. 265호.
- 13) 어패럴뉴스. 2005. 4. 11. 06시 46분.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
- 14) 한국일보. 2004. 2005 S/S 컬렉션. 10월28일자.
- 15) YTN STAR. 2005년 5월 11일. 15:25분. 자료출처 [http://www.ytnstar.co.kr/search/search\\_view.php](http://www.ytnstar.co.kr/search/search_view.php)
- 16) 조선일보. 2005년 3월 4일. 자료출처 [www.danmee.chosun.com](http://www.danmee.chosun.com)
- 17) 팝뉴스. 2005년 4월 22일. 15:20분 기사.
- 18) Fashion Insight. 2005년 Monday, January 17. No. 243, p.24.
- 19) Ibid., p.25.
- 20) 조선일보. 2005년 4월 27일. 패션&뷰티 면.
- 21) Fashion Insight. 2005년 Op. cit., p.24.
- 22) ELLE. 2005년 2월호, p.27.
- 23) 라사라교육개발원 (2002). Op. cit., p.500. 자카드(Jacquard) - 19세기 초 자카드 직기를 발명한 프랑스인 조셉 마리 자카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자카드 직기를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문양을 표현 한 천을 통칭하는데, 브로케이트, 태피스트리 등이 모두 자카드직이다.